

2일 Market Index	
코스피 2398.94 (-0.55)	코스닥 686.63 (+8.44)
금리 (연이자율) 2.510 (-0.086)	환율 (원/달러) 1467.25 (-5.25)

“지난이행 마음가짐으로  
솔선수범  
함께 나아가자”  
02



## m-커버스토리

# 혼돈·격변의 시기... 조직개편 통해 혁신·효율 집중

### 새해 금융권 화두

4대 금융지주, 안정적 성장 방침 내부통제 강화로 신뢰 회복 나서  
신기술 기업과 경쟁력 강화 모색

불확실성이 커진 을사년(乙巳年) 새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경영 키워드로 ‘혁신’과 ‘효율’을 꺼내 들었다. 연말부터 지속된 탄핵정국과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미국 트럼프 정부 2기의 자국 우선주의는 소비·투자 위축과 기업의 수익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무리한 외형 성장보단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에 방점을 두겠다는 포석이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4대 금융지주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과 격변이 예상되는 시기다”라며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효율적으로 자본이 배분되는지 살펴보고, 신기술·혁신 기업과의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

조했다. 우선 4대 금융지주 회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 규모를 축소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조직운영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데이터테크놀로지(DT)조직과 인공지능(AI)조직을 통합하는 등 본부조직을 축소

했다”며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 관리체계를 정비했다”고 했다. 올해 KB국민은행은 31본부, 139부에서 27본부 117부부로 개편했다.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주 계열사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금융사고는 총 37건에 달한다. 배임, 횡령, 운용손실 사태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는 거액의 보상금액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뢰도에도 타격을 줬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 돈이 새는 구멍을 막아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내부통제에 역점을 두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객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올해는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평가, 모니터링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개소세 1.5%p 한시 인하, 국내여행 경비 지원

### 기재부 ‘2025 경제정책방향’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폭 늘리고 외국인 訪韓축제 연중 릴레이 기획

올해 초부터 자동차 구매 시 붙는 개별소비세율이 1.5%포인트(p) 인하된다. 지난 2023년 7월 정상세율인 5.0%로 환원된 지 1년6개월 만의 세율 할인 조치다. 또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정부·기업 부담 각각 10만 원씩 직원 1인당 20만 원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방한관광 및 소비촉진의 개최를 연중 릴레이 행사로 기획 중이다. <관련기사 3면>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소비 촉진·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 중 개소세 인하는 상반기 한시적 시행으로, 기존 차량 출고가의 5.0%에서 3.5%로 세율을 낮춘다. 4000만 원 상당의 중형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이 총 70만 원 줄어든다. 개소세는 -49만 원, 교육세(개소세의 30%)는 -15만 원, 부가세(차량공급가액+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는 -6만 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대상 휴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내 조기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코리아그랜드세일(1월15일~2월28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관광 붐 조성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의 최대 94% 할인, 면세점 구매 시

최대 30% 추가 환급 등이 마련됐다. 경제정책방향에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상반기 중 3만 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5만 호(서울 서리풀 2만 호 등)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은 1년간 완화해, 공공택지의 적기 공급을 추진한다. 물가 관리 및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의 신속 집행도 추진된다. 상반기 중 예산의 80%를 집행한다. 또 오렌지와 바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즉각체포” vs “탄핵반대” 충돌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체포 촉구 긴급행동의 집회 주최측이 무대 설치 중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모든 위대한 시작은  
작은 첫걸음에서 출발합니다

# 2025 시작

2025년을 시작하는 지금,  
대한민국이 시로, 더 큰 수출로 도약할 수 있도록  
SK가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